

명예기자식

명예기자식은 경화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4매
◇보낼곳 : 서울 <본사편집실>, 수원 <공과대학 614호>

폭염속 열린 범민족대회 분단상황의 인식전환 계기

90년 여름은 무더기로 폭염속에 지내었다. 기나긴 장마와 폭염, 그속에 경화가족들이 지나간 방학의 터널속에 있을때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무더운 여름날씨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방망이질 치고 있음을 의식한다. 내가 경험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난 8월 13일부터 시작하여 15일에 막을 내린 범민족대회를 통한 남한 사회 분단상황의 새로운 인식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대란 각자의 서로다른 인식 차이가 존재한게 사실이다.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눈에 비친 범민족대회는 그야말로 가슴짜릿한 현장으로 나이 어린 소년소녀부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농촌의 농민부터 도시의 노동자 학

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수만명의 인파가 하나의 목소리로 조국 통일을 외친것은 드디어 우리 사회가 하나됨을 통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의식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한 사회의 주체가 하나의 힘으로 진정한 역사 발전의 수레바퀴를 돌릴때 한 사회가 가진 부정과 부패를 일소해 버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는 자신을 속이거나 역사의 전환기를 외면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없음을 이번 범민족대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느꼈으리라 본다. 이러한 현실적 자각을 우리 경화가족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홍 전 석
<정경대 경영·2>

故 박종철군사건 피고인 무죄판결 역사의 넘기려 반민자당 투쟁으로

지난 22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공본실입구에선 박종철씨 고문치사 및 범인 은폐조작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박열사의 부모 및 민가협소속 40여명이 규탄집회를 가졌다.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폭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재학생이던 박열사는 남양주 부근에서 불법연행되어 압송된 대공본실에서 가혹한 물고문, 전기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운동의 대의와 동지애를 지키다 산화하였다.

당시 담당 의사도 분명하게 사망원인에 대해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와서 번복을 하는 현 정권의 저의 또한 무엇이겠는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박종철씨의 죽음, 다시금 역사의 넘을 기리고, 반민자당투쟁 전선에 총진군하여야 할 것이다.

전 명 하
<자연대 화학·3>

한달여에 걸친 해외어학연수 복잡한 절차·병역등의 문제점 노출

과소비중조가 만연해 있는 요즘 우리사회에서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문제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감해 볼때 사실 이번 대만어학연수의 기회가 사치중조에 한몫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잖이 있었다.

대학이라는 사회에 발을 디딘 지 1년반만에 가진 이번의 어학연수는 어학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에 가본다는 막연한 설렘으로 연수를 준비했었다. 대만이라는 땅에서의 체험은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큰 자극과 충격을 던져 주었다.

대만 하계방학마다 있는 대만어학연수는 작년 1년을 쉬고 올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연수는 우리대학에서 간담회의 생활을 함께 하면서 개인의 어학실력을 올리는 기회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어학연수의 목적이

언어학습 뿐만 아니라, 그곳의 우리와 같은 외국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더 넓어진 세계관을 형성해 하는데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작성과 현재 그곳의 생활과 문화, 풍습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중요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면에서 볼때, 이번 우리과의 어학연수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개인시간을 통해 그곳 젊은이들과 사귀고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넓어진 나의 세계관을 생각한다면 경비에 못지않은 성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반면 이번 연수를 통해서 몇가지 시정해야 할 점들이 생각드는 것은 학교·당국의 복잡한 절차와 병역등의 문제였다. 사소하지만 더 번거로운 규정상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었다. 하지만, 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연수의 기회가 늘어나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또한 이 지면을 통해 우리를 위해 애써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조 용 연
<중문·2>

당구장·술집에서 느낀 한심한 개강의 모습

2달여의 긴 침묵을 깨고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

모든 학사일정이 제 궤도를 찾았고 그간 농촌에서, 노동현장에서, 도서관에서 흘러던 땀방울들이 이제는 강의실로 모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개강을 피부로 느껴야 할 곳인 강의실, 낯선 술 모르고 캠퍼스를 고상하게 오묘시키는 무리들, 복직대는 오라실, 술집들이 훨씬 개강을 실감나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이 문 영
<철학·2>

떠난다는 것의 흥분과 설렘

8월주제 '여행'

떠난다는 것은 흥분과 설렘이 있을것 같다. 예를 들어 사업 및 공무를 위한 여행에서부터 연구 및 조사를 위한 여행, 탐험 및 모험을 위한 여행, 성지 순례를 위한 여행, 건강 및 요양을 위한 여행, 맛과 낭만을 위한 여행, 휴식과 놀이를 위한 여행, 쇼핑을 위한 여행등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것은 아마도 휴식과 놀이를 위한 여행이나 쇼핑을 위한 여행들이 아닐까 싶다.

물론 요즘 기업과 국가를 위해서 남극에서, 시베리아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동구 및 중국등에서 분투

순례를 위한 여행, 건강 및 요양을 위한 여행, 맛과 낭만을 위한 여행, 휴식과 놀이를 위한 여행, 쇼핑을 위한 여행등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것은 아마도 휴식과 놀이를 위한 여행이나 쇼핑을 위한 여행들이 아닐까 싶다.

물론 요즘 기업과 국가를 위해서 남극에서, 시베리아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동구 및 중국등에서 분투

장 일 순
<사회대교수·사회학>

“전날밤의 들뜬 마음은 뜬눈으로 잠을 설치게 하고...”

평을 위해 열안이 되어 찾아다니다가 그나라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등은 최근의 많은 한국여행객들이 외국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추한 한국인’의 행동양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독일이 있을때 한국 여행객을 배우고 관광을 맡았던 한 독일버스 기사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관광 버스기사생활을 했지만 오를처럼 이렇게 버스안에 많은 쓰레기가 남겨진것은 처음보았다”

알림터

<고 황 골>

무역학과, 정의과 단합대회

정경대 무역학과는 오는 28일 5시에 '학회 단합대회'를 갖는다.

3층 학회실에서 개강잔치를 겸해 열리는 이번 단합대회는 회비 2천원이 없으면 입장불가라고.

한편 정의과도 오늘 오후 6시 학생회관 식당에서 개강잔치를 벌이는데 회비는 많을수록 좋다고 한 학생이 귀띔.

'법대문화' 원고 모집

법대 편집위원회는 '법대문화'에 실릴 원고를 모집한다.

10월 중순이 마감이며 원고양이나 내용에 전혀 제한이 없는 이번 원고모집은 장당 2백원씩인 원고료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대자보를 보던 한 학생이 지적했다.

치과대, 한의대 동아리대표자모임

치과대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오늘 오후 5시 본2 강의실에서 열린다.

안건은 오는 9월 25일에 있을 동연제 준비라고.

또한 한의대 동아리 대표자회의도 오는 9월 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장소는 4층 학술동아리방이며 학기사업계획 및 신규입원인사, 회칙개정이 주요 안건.

<서 천 골>

신갈일대 오물수거작업 실시

이기헌 총학생회장 석방을 위한 가두총보전을 겸한 신갈일대의 각종 오물수거작업이 총학생회 주최로 지난 24일 1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전경들의 호의를 받으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수거작업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했다고.

입학과 체육대회, 알디라정기총회

입학과 학생회는 오는 28일 체육학과대 앞 농구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알디라 음악을 사랑하는 알디라 개강식과 임시총회가 오는 29일 알디라 동아리방에서 열린다.

'사랑의 수확교실' 2기생 모집

동아리 손짓사랑회는 '사랑의 수확교실' 2기생을 모집한다.

오는 29일 외국어 교육관 321강의실에서 모임을 가지며 접수장소는 구내매점.

알림터는 학과 동아리의 크고 작은 소식들로 독자여러분이 꾸미는 란입니다.

학생회 강화를 위한 제언

“회석아, 내일 총회하는데 꼭 나와줄래?”
“응, 알았어”
“성기야, 00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 수 있니?”
“안돼, 난 친구랑 약속이 있

치루지는 날에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실망하는 일이 허다하다.

한 학기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회 일들의 계획을 세울때 항상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원들의 유대강화와 학회를 강화하기는 목적을 둔다.

매번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할 실시하지만 더 나아가는 내용들의 성과와 오류를 찾기보다는 행사 자체에 대한 의미성 부

신을 가질수 있어야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내에서 자발적인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학생회에 이루어진다고 할때 학생회의 관심의 폭은 넓어진다. 처음 대학을 대하는 신입생들도

외톨박이 학생회

미팅이나 당구에 열심인 학생이기 보단 학회 활동속에서 대학을 얘기할수 있는 지성인이길...

자신의 일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개인주의가 은연중에 학생회의 사업에 무관심해지지는 않는가 보았으면 한다. 학생회일들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로 부터 무뎠다고 학생회를 비판하

“책에서나 보던 모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책들도 한사람, 한사람을 묶어주는 깊은 정이 됩니다

두산그룹은 공산권 책보내기운동을 통하여 공산권 우리동포들에게 조국과 우리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학술지원사업, 교사해외연수, 장학금지급 등의 사업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모두의 큰 내일을 열어가는 작은 노력들입니다.

공산권 우리동포에게 책을 보냅니다.

89년부터 두산그룹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산권 책보내기운동에 함께 하신 분은 두산그룹 연경학술재단으로 연락하여 접수하십시오.

■ 주소: 서울로 471 13번지 (연경빌딩) 110-124
■ 전화번호: 763-8151

● 중국 연경 '조선족 민중 정령연구소' 소장인 동창원씨, 지난 5월 10일 평壤에서 열린 연경에서 보낸 두산그룹의 장학금과 감사의 편지라고 말했다.

두산그룹